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요일로 6월 23일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예비회의에는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예비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군사정책토의안

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역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였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 본사기자

비범한 정치실력과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주체강국의 존엄을 빛내이고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모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4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진행된 《인민이 신뢰하는 령도자》라는 주제의 인터넷사진전시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짧은 기간에 1 153만여명의 열람자수를 기록한 전시회에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진보적인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되었다. 중국세계평화기금회, 베이징국제평화문화기금회 공동체브레이크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홈페이지를 열람하는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력을 절감할수 많은 사람들은 위인칭송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위풍당당하시다. 지난 몇년동안에 그의 비범한 정치실력이 파시되었다. 세계의 정치가들은 탄복할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령도는 대단히 멋있다.》 《조선의 령도자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인민은 정말로 행복하다. 사람들의 열굴마다에 행복의 웃음이 담

겨져있다.》 《수령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같은 존경과 신뢰는 진정에 넘쳐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의 사랑을 받으시는 훌륭한 령도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축원한다. 조선의 강성변영을 축원한다.》... 이란주제 조선사람을 축하방문한 전 이란국태권도 협회 회장 자비드 사흐베르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력사적사건이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인민이 선대수령들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이끄신다. 그의 령도가 있어 조선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었으며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우리는 이란과 조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련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단체들은 축하성명들에서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김정은각하의 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은 조선사회의 향도적력망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만을 펼쳐가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뜻한 인정을 지니신 인민적인 정치가》, 《파강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로 찬양하였다. 우간다전국학생운동기판지 《파블리코 렌즈》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세계정치무대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정치가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첫째 매력은 강과 유를 조화롭게 겸비하신것이다. 최근 몇년간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보여주시신 자애와 결단은 국제사회에 매우 강한 지도자로 알려지신 그의 기질을 증시해준다. 그러나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강하신것만큼 매우 부드러운분이다. 인민들의 인사도 허리굽혀 받아주시고 미소속에 그들과 귀속말도 하시는 등 인민들을 대하시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친절하고 소탈하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찾으시어서는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생활적인 이야기도 나누시며 아이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은 국가지도자이사라기 보다 한집안의 가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 첼보르는 아이들의 청도 무렵없이 받아주시며 그들을 환유에 안으시고 사진을 찍으시는 위인의 영상은 정말이지 인상적이다. 이런 분을 조선인민은 령도자로 우러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매력은 다음으로 빈말을 모르시는 대단히 믿음이 가는분이시라는것이이다. 그이께서는 일단 결심하신 데 대해서는 꼭 그대로 실천하신다.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여유있고 자신감에 넘쳐 정확한 결심을 내리시는 그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며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는 한 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을 철석같은 신조로 간주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또한 매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분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대담하게 사고하고 실천하신다. 비상한 창조와 혁신은 그의 주되는 활동방식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아랍조선헬조선리사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품관, 뜨거운 인민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의 기본요구로 확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억만재부도 인민을 위해서만 가치를 가진다고 보시며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것 그자체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도덕도 인민을 위하고 인민적인것만이 향려되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김정은위원장의 숭고한 사랑감은 조선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한평생 아끼고 사랑하신 인민을 자신께서 말아안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지니시였기에 그이께서는 폭설과 폭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이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천만인민을 따사로운 품에 안아 보살피신다. 하기에 조선에서는 부모없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국가의 관심밖에 놓여있는 사람, 인민정권의 시책밖에서 알날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찾아볼수 없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사업하신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를 이것저것 재는 식으로가 아니라 최대의 속도도 밀고나가도록 하시며 조선인민을 세기의 상강봉에 올려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를 창조해내도 세계적인것을 창조하도록 이끄신다. 김정은위원장의 특출한 령도실력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김정은위원장은 조선을 어떻게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는가,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환히 꿰뚫고계시는 실력가형의 령도자이다. 그의 령도실력은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혁명을 끊임없는 상승으로 이끄시는 빛나는 예지이고 천만대중을 하나로 움켜쥐어 만민을 구해내가는 원숙한 조직동원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 힘으로 기적을 안아오는 비상한 창조력이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뢰심은 김정은위원장께서 지니신 뛰어난 령도실력에 대한 끝없는 애복이고 절대적인 믿음이다. 절출한 령도자를 모시며 조선은 머지않아 사회주의강국으로 솟아오를것이다. 이렇듯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단체들, 언론들의 칭송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인류가 우러르는 위인중의 위인이심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이 신뢰하는 령도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여러 나라에서 칭송

조국소식

평안남도보건산소공장 준공

평안남도보건산소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하였다. 평성시에 일떠선 보건산소공장에는 모든 설비들을 자동조종할수 있는 통합자동조종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산소분리기장, 산소총진장 등이 그르히 갖추어져있다. 도보건산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좋은 의료용산소를 대량생산하여 평안남도는 물론 남포시안의 병원들에게까지 보강해출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보건산소공장을 자체로 일떠세울 목표밑에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해나갔다. 건설자들과 련관단위들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파강한 돌격전, 창조전을 벌려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짧은 기간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다그쳐 끝냈다. 평안남도보건산소공장 준공식이 22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공장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건물과 설비들을 예호관리하고 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에방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공화국은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만 살며 투쟁해나가고있다. 공화국에서 날에 날마다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눈부신 기적과 위훈이 련이어 이루어고있는것도 모든것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령도자의 사상의지대로만 해나가려는 인민들의 투철한 사상관점, 결사관철의 기풍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이것은 오직 온 사회의 사상적일쇄화를 실현한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참모습이다. 공화국은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단결된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이다. 공화국에서 일심단결은 인민대중이 수령과 사상과 뜻도 하나, 승결과 결음도 하나가 된 사상의 지적단결인 동시에 온 사회가 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왔다.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으며 수령님들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특히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밑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정치의 원리로, 인민사랑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하는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운명을 책임적으로 보살피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령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는 그 무엇보다도 비할바없이 두터워지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져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 공화국은 자주를 확고부동한 정치철학으로 내세우고있는 정치사상강국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할 때만이 사소한 편차도 없이 즐기치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며 남에게 의존하려고만 하는 나라는 자기의 주권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고 남의 품에 놀아나기마련이다. 흥정옥

위대한 령장을 모신 조선의 어제와 오늘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달려든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불의의 무력침공에 맞서 온 나라 인민이 조국수호전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갔다.

세월은 퍼그나 흘렀지만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조국의 귀환, 평화의 소중함을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조선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규모가 가장 큰 전쟁이었다. 비록 크지 않은 조선반도의 한정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나 참전국수와 참전병력수 그리고 소비된 전쟁물자를 놓고 보면 가히 세계적인 규모의 싸움이였다.

그러나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던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전투마다 무리죽음을 내고 배전을 거듭하였으며 종당에는 영웅적조선인민애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맞서 싸운 공화국은 창건된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방후 5년동안 땅과 공장,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려온 공화국인민은 다시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싸웠으며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

민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이 위대한 승리로 하여 공화국은 영웅의 나라로, 공화국인민은 영웅적인 민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인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할한 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이며 전체인민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이 안아온 군사적기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탁월한 사상과 지략, 뛰어난 명군술을 지니시고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셨다.

공화국이 침략세력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사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할수 있었던것도, 전쟁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불과 몇달안에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을 해방할수 있었던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법과 명군술이 안아온 기적이었다.

전설적명장의 그 기상과 신묘한 지략앞에서는 적들의 그 어떤 기도도 맥을 추지 못했다.

외국의 어느 한 도서에는 침략세력이 명성높은 많은 장군들을 조선전쟁에 파견하였으나 불리한 전쟁형세를 역전시킬수 없었다고 하면서 상대인 북조선군총수 김일성장군이 30대의 젊은 장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수

운 현실이 펼쳐지고 과학헌이 창설되었으며 무상치료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는 등 전설같은 일들이 생겨날수 있었던것은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세계, 신념과 락관의 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주제40(1951)년 1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오래도록 전쟁에 의해 파괴된 시내를 부강하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전쟁이 끝나면 평양을 새로 건설해야겠는데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얼떨떨해있는 그들을 일별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지금부터 평양시를 일떠세울 준비를 잘해야 하겠다고, 우

리는 이 재더미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평양,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대도시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아마 우리가 전후복구건설을 설계한다는것을 전선동무들과 인민들이 알면 큰 힘이 될것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평양주제 전 초련신문 《브라우다》 특과기자였던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의 침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국가발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울인 그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방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어제날 원자탄을 가진 제국주의강적과 보병총으로 맞서싸워서도 승리한 조선은 오늘 강위력한 전쟁역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화국의 군대는 지난 조선전쟁때와는 대비할수 없게 강화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장군 70동경축 열병식에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융성번영할것이라고 엄숙히 언명하시었다.

오늘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이런 소중한 진리가 신념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위대한 전승의 력사는 이 땅에서 계속 빛을 뿌리고 공화국은 영웅의 나라로 끝없이 존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메일은 반드시 오게 될것이라는것이.

본사기자 주일봉

우리들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 한 몸을 바친다한들 어찌 수령님의 그 높으신 은덕과 사랑에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보답할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았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강철같은 혁명전사로 자란 우리들은 조국의 섬 율리도를 지켜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원수와 싸울것을 최고사령관동지께 굳게 맹세합니다.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이것이 바로 력량상 대비가 되지 않는 간고한 전투에서도 후추의 곱함도 없이 끝까지 싸운 용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이다.

어찌 이룰뿐이라.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집의 근처에 적기가 떴군 큰 불발탄이 박혔을 때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제거한 인민군인들, 불비 쏟아지는 최전선으로 전사들을 찾아가시는 수령님의 앞길을 막아나시며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더는 나가주시 말아주시 오라고 간절히 아뢰인 내어린 처녀병사...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승리만을 떨쳐가는 공화국력사에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결결한 혁명정신, 당중앙결사옹위정신으로 꽃피어 이어지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공화국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의 근본핵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의무이기 전에 삶의 요구, 량심과 의리로 여기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자기 수령을 온몸과 심장을 바쳐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오직 공화국인민밖에 없다.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이나 이후 평화적인 건설의 나날이나 한모습 변치 않고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굳세게 이어오고있는 공화국인민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우리들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 한 몸을 바친다한들 어찌 수령님의 그 높으신 은덕과 사랑에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보답할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았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강철같은 혁명전사로 자란 우리들은 조국의 섬 율리도를 지켜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원수와 싸울것을 최고사령관동지께 굳게 맹세합니다.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이것이 바로 력량상 대비가 되지 않는 간고한 전투에서도 후추의 곱함도 없이 끝까지 싸운 용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이다.

어찌 이룰뿐이라.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집의 근처에 적기가 떴군 큰 불발탄이 박혔을 때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제거한 인민군인들, 불비 쏟아지는 최전선으로 전사들을 찾아가시는 수령님의 앞길을 막아나시며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더는 나가주시 말아주시 오라고 간절히 아뢰인 내어린 처녀병사...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승리만을 떨쳐가는 공화국력사에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결결한 혁명정신, 당중앙결사옹위정신으로 꽃피어 이어지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공화국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의 근본핵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의무이기 전에 삶의 요구, 량심과 의리로 여기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자기 수령을 온몸과 심장을 바쳐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오직 공화국인민밖에 없다.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이나 이후 평화적인 건설의 나날이나 한모습 변치 않고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굳세게 이어오고있는 공화국인민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의 침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국가발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울인 그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방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어제날 원자탄을 가진 제국주의강적과 보병총으로 맞서싸워서도 승리한 조선은 오늘 강위력한 전쟁역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화국의 군대는 지난 조선전쟁때와는 대비할수 없게 강화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장군 70동경축 열병식에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융성번영할것이라고 엄숙히 언명하시었다.

오늘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이런 소중한 진리가 신념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위대한 전승의 력사는 이 땅에서 계속 빛을 뿌리고 공화국은 영웅의 나라로 끝없이 존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메일은 반드시 오게 될것이라는것이.

본사기자 주일봉



자랑찬 전승의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전쟁로병들 (2015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앞마당에 세워진 부주제군상들의 일부

수령결사옹위 기 공화국의 무병 (2)

공화국에서 최고존엄은 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기둥으로 되고있다. 수령이 계시어 자주적이며 행복한 인민이 있고 모든 승리와 영광도 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어느 한때도 내리운적이 없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갈피마다에도 그 감동깊은 화폭이 수없이 새겨졌다.

공화국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은 수령님 안겨주신 인민의 세상, 행복의 요람을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목숨바쳐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전쟁 전기간 싸우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역척같이 새겨져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은 말그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였다.

수령님 계시는 평양의 상공을 목숨바쳐 지키자며 적기와 맞서싸운 하늘의 매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청춘이지만 불뽕은 적의 화구를 서슴없이 몸으로 막은 18살의 리수복영웅, 나의 팔다리는 부서졌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굳게 다져진 불굴의 투지를 보여 주리라고 웨치며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에 육탄으로 돌입한 강호영영웅...

단 4문의 포와 한개 중대의 력량으로 약 1 000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함선, 5만여명의 대병력과 싸워 3일간이나 섬을 지켜낸 율리도용사들의 영웅적인 삶은 무엇으로 더욱 빛나는것인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그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율리도의 뒤로는 수령님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들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심장의 더운 피를 합쳐 이런 맹세문을 남겼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이시여! ...

우리들은 적들과의 결사전을 앞둔 이 준엄한 시각에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던 지난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봅니다.

우리들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 한 몸을 바친다한들 어찌 수령님의 그 높으신 은덕과 사랑에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보답할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았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강철같은 혁명전사로 자란 우리들은 조국의 섬 율리도를 지켜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원수와 싸울것을 최고사령관동지께 굳게 맹세합니다.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이것이 바로 력량상 대비가 되지 않는 간고한 전투에서도 후추의 곱함도 없이 끝까지 싸운 용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이다.

어찌 이룰뿐이라.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집의 근처에 적기가 떴군 큰 불발탄이 박혔을 때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제거한 인민군인들, 불비 쏟아지는 최전선으로 전사들을 찾아가시는 수령님의 앞길을 막아나시며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더는 나가주시 말아주시 오라고 간절히 아뢰인 내어린 처녀병사...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승리만을 떨쳐가는 공화국력사에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결결한 혁명정신, 당중앙결사옹위정신으로 꽃피어 이어지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공화국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의 근본핵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의무이기 전에 삶의 요구, 량심과 의리로 여기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자기 수령을 온몸과 심장을 바쳐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오직 공화국인민밖에 없다.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이나 이후 평화적인 건설의 나날이나 한모습 변치 않고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굳세게 이어오고있는 공화국인민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비범한 지략과 명군술로 ◎

《귀신이 곡할노릇》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한 이튿날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해군지휘관에게 동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적함대를 담배기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면서 그러자면 얼마만한 력량이 필요하겠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 지휘관은 세계적으로도 공인된 어느 나라의 해군전투교범을 레로 들면서 중순양함집단에 돌입하자면 적어도 수십대의 비행기와 수십척의 어뢰정이 합동타격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자기 견해를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직 어뢰정이 적고 또 해군에 비행기를 지원할 형편도 못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놈들이 조선동해에서 마음대로 날치면서 야수적인 함포사격을 감행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2어뢰정대로 적의 중순양함을 까부실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당시 인민군대해군의 유일한 제2어뢰정대가 보유하고있는 어뢰정은 단 네척뿐이었다. 반대로 적함선집단은 1만 7 000t급의 중순양함 《블리토》호와 1만 4 000t급의 경순양함, 3 500t급의 원양구축함에 각종 포가 근 200문이나 되고 유생력량도 3 350여명이나 되였다. 결국 인민군대의 어뢰정대는 규모와 무장장비에서 적군의 440분의 1, 력량도 불과 105분의 1밖에 안되였다.

하지만 그이의 작전적의도에 따라 어뢰정대는 주문전앞바다에서 적의 함선집단에 대한 대담한 공격을 단행하여 중순양함 《블리토》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은 격상시키였다.

세계는 어뢰정대의 혁혁한 전과에 대해 력사에 류례없는 해전상보로 죽가마 뚫듯 하였고 세계의 면전에서 대참패를 당한 적들은 《귀신이 곡할노릇》이라고 개탄하였다.

세계는 어뢰정대의 혁혁한 전과에 대해 력사에 류례없는 해전상보로 죽가마 뚫듯 하였고 세계의 면전에서 대참패를 당한 적들은 《귀신이 곡할노릇》이라고 개탄하였다.

7월 20일 새벽 5시, 수령님께서서는 대전지구에 대한 총공격을 명령하시였다.

세계의 그 어느 병사에도 없는 그이의 독창적인 주체전법과 탁월한 명군술에 의해 현대포위전의 모범으로 창조된 대전해방작전은 수만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150문의 각종 포와 1 000여대의 군용차 등 수많은 전투기술기재들을 파괴, 로획한 인민군대의 빛나는 전과로 그날 낮 12시 막을 내리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과시하는 백승의 대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는다

남조선에서 조선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을 계기로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 것이 벌어졌다.

《평화를 위한 기억》이라는 미명하에 《전투재연 관람》, 《특별전시회》 등을 벌려놓았을 때부터 내외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이 비발했건만 또다시 그 무슨 《위로연》, 《음악회》, 《추모제》 등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시기 조선전쟁에 참가했었다는 늑대리 《병사》들을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 해마다 벌려온 놀음이지만 북남관계가 진전을

고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광대국을 또다시 벌려놓는 것은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적도발이고 새 전쟁을 추구는 무모한 망동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혈육들을 빼앗고 소중한 많은 것을 잃게 하는 전쟁은 누구에게나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는 아픔이라는 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가 전쟁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슬픔과 회개에 대한 추억만이 아니라 더는 그러한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소원이어서이다.

지난 조선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전쟁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외세의 야망이 불을 지핀 철저한 침략전쟁이며 우리 민족에게 아물수 없는 불행과 고통의 상처를 남긴 대살륙전, 민족말살전쟁이었다.

그 전쟁으로 하여 삼천 리강토가 재더미로 변하고 수백만의 우리 민족이 희생되었으며 수많은 우리 혈육들이 생리멸을 강요당하였다.

민족성원모두의 가슴에 응어리진 그 아픔을 먼저 생각한다면 6.25를 저주해야 하

고 제2의 6.25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자, 살인귀들에게 《감사》를 조아리고 꿈에서도 몸서리칠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평화》를 운운하면서 침략전쟁을 《기념》하고 침략자, 강점군을 《동맹》이라 개여올리면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포장하는 그런 광대국은 지구상에서, 력사의 갈래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조선전쟁이 있을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

금도 이 땅에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암살책동으로 인해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 이 시각까지도 전쟁 《기념》놀음을 벌리며 대결광기를 부리는 것은 민족의 평화지향에 대한 우통이고 도전이다.

남조선에서 《평화》의 간판밑에 전쟁을 고취하며 그 준비에 혈안이 되고있지만 력사는 툭툭히 말해주고 있다.

불을 지른 자는 제가 지른 불에 타죽고야만 한다는 것을 한 광일

조선전쟁의 통습도 무시한 반인륜적 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까자호스만에 있는 반일의병대장 흥법도의 유해를 가져오려는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흥법도는 평양에서 태어나 북부조선일대와 중국, 로씨야 원동지역에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의병대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법도유해를 기어이 남조선으로 옮기려는 것은 조선전쟁의 통습도, 국제관례도 무시한 반인륜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은 물론 해외의 온 겨레가 한결같이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실이다.

까자호스만정부도 지난 시기 공화국에 조선의 북과 남이 통일된 이후에 흥법도의 유해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법도유해를 기어이 남조선으로 옮기려는 것은 조선전쟁의 통습도, 국제관례도 무시한 반인륜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흥법도가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것은 외세가 없는 독립된 조선을 위해서였다. 이러한 흥법도가 자기의 유해를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땅에 옮긴다는 것을 안다면 원통하여 무덤을 박차고 나와 사대배척세력들을 단죄할 것이다.

흥법도유해송환문제로 공화국을 자국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용철

최근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노는 행동이 재에는 정신이 없고 재발에만 정신이 있다는 격언 그대로이다.

지금 남조선민생은 여러 달째 세계를 휩쓸고있는 《COVID-19》 확산사태의 영향으로 말이 아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민심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계가 이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가망이 없다.

그도 그럴것이 《미래통합당》과 같은 보수세력들

이 민생을 혼란다는 《국회》에서 인민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기때문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세상 난 아이 생투정 부리듯 《국회》에서 이미 결론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리를 저들에게 내어달라고 앙탈질을 부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여당인 18개 상임위원직리를 다 가져가고 《국정》과 관련 책임을 지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지난 선거때 남조선인민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할듯 노족을 부리며 머리를 굴적이고 《한반도 기회를 달라》며 닭동같은 눈물을 흘리고 동정심으로 민심을 구걸하던 《미래통합당》이다. 그러나 보수억제당의 추악한 정체를 속속들이 간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래통합당》에 단호한 심판을 내

리었다.

이런 《미래통합당》이 민심의 심판에서 교훈을 찾은 대신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리를 차지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리를 차지하고 동족대결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기를 쓰고 달라고하면서 민생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이리저리 한 구실로 거의나 다 무효화시키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지탄받게 되었고 지난 선거에서 민심은 그러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미래통합당》을 심판하였던 것이다.

일이 이쯤되었으면 《총선 결과를 겹쳐서 수용한다》고 한 말 그대로 《미래통합

당》이 권력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리놓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신경쓰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권력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미래통합당》은 저들이 언제 그런 말 했던가 실제 입을 뱉 다시고 다시금 20대 《국회》 시기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있다.

더러운 권력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처나누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마치 배다귀를 차지하려고 으름장대는 개를 방불케 하고있다.

살길을 찾아달라는 민심의 목소리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제 리속만 차리려고 미친 승냥이마냥 덤벼드는 《미래통합당》에 의해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민생을 떠난 더러운 정쟁의 무대로 되고있다.

《미래통합당》과 같은 권력에 환장한 정치시정배들이 그 무슨 《일하는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떠들고있는것이아말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통이며 모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민심에 역행하는 보수야당의 해체를 주장

남조선 인터넷 트집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대확성진보련합, 국민주권련맹, 청년당이 19일 《미래통합당》 건물앞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보수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언자들은 《미래통합당》이 조선반도를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으려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직리를 차지해보려고 발악하는 한편 부정선거의혹을 내뿜고 공수처설치를 방해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래통합당》을 해체해야만 민심에 역행하며 지나는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사사건건 발목잡는 미래통합당, 국민의 명령에 따라 지금 당장 해체하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랑독하였다.

성명은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제 처지를 모르고 랑설을 퍼뜨리며 사사건건 《국회》운영을 가로막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민의 의사를 계속 거부하는 적폐중의 적폐, 쓸모없는 《미래통합당》은 사라져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이 민생을 혼란다는 《국회》에서 인민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기때문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세상 난 아이 생투정 부리듯 《국회》에서 이미 결론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리를 저들에게 내어달라고 앙탈질을 부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여당인 18개 상임위원직리를 다 가져가고 《국정》과 관련 책임을 지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지난 선거때 남조선인민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할듯 노족을 부리며 머리를 굴적이고 《한반도 기회를 달라》며 닭동같은 눈물을 흘리고 동정심으로 민심을 구걸하던 《미래통합당》이다. 그러나 보수억제당의 추악한 정체를 속속들이 간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래통합당》에 단호한 심판을 내

리었다.

이런 《미래통합당》이 민심의 심판에서 교훈을 찾은 대신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리를 차지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리를 차지하고 동족대결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기를 쓰고 달라고하면서 민생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이리저리 한 구실로 거의나 다 무효화시키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지탄받게 되었고 지난 선거에서 민심은 그러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미래통합당》을 심판하였던 것이다.

일이 이쯤되었으면 《총선 결과를 겹쳐서 수용한다》고 한 말 그대로 《미래통합

당》이 권력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리놓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신경쓰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권력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미래통합당》은 저들이 언제 그런 말 했던가 실제 입을 뱉 다시고 다시금 20대 《국회》 시기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있다.

더러운 권력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처나누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마치 배다귀를 차지하려고 으름장대는 개를 방불케 하고있다.

살길을 찾아달라는 민심의 목소리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제 리속만 차리려고 미친 승냥이마냥 덤벼드는 《미래통합당》에 의해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민생을 떠난 더러운 정쟁의 무대로 되고있다.

《미래통합당》과 같은 권력에 환장한 정치시정배들이 그 무슨 《일하는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떠들고있는것이아말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통이며 모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세계적인 《COVID-19》 전파상황

보도들에 의하면 24일 24시현재 세계적으로 951만 6 078명이 《COVID-19》에 감염되고 그중 48만 3 905명이 사망하였다.

516만 3 261명이 완치되고 385만 8 912명이 치료를 받고있다.

다고 하면서 감염자가 늘어 나게 된 원인은 주민들이 방역요구를 무시하고 망탕 모이고 폐양한데 있다고 밝혔다.

그 수가 늘어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탈리아에서 23만 9 410명, 도이칠란드에서 19만 1 449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벨지프에서 6만 898명의 감염자와 9 722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었으며 네델란드와 포르투갈에서는 각각 4만 9 804명, 4만 104명의 감염자가 나타났다.

과거 조선을 비범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일본에 비해 훨씬 우월한 조선어를 없애지 않고서는 《야마모토 민족》의 《유월성》을 내세울 수 없고 조선민족을 영구히 지배할 수 없다고 타산하고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민족어를 말살하기 위한 책동에 악랄하게 달라붙었다.

일제는 《황국신민화》, 《동화》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의 《혼연융합》을 집요하게 떠들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선총독부 학부국장인였던 다케미 키이찌판자는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상감정으로부터 언어, 풍속을 이르기까지 혼연융합하는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선(일본과 조선)간에서 서로 량자가 일체로 되어 동화되고 한가적으로 되어 융합되는것이 필요하다.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민족의 발과 글까지 빼앗으려고

기 위한 강력한 통치체계를 마련하고 조선어의 철저한 말살을 위해 조선총독부와 도청, 군청, 민사무소, 경찰서, 주재소, 파출소 등 행정, 경찰기관은 물론 헌병까지 총동원하여 조선어말살에 미쳐나누었다.

일제는 《판공서와 재판소》를 기러에서 쓰는 모든 공문서를 일본어로 한다.》고 공식선언하고 일본어는 조선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어》라고 거리낌없이

판규칙》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민족성과 민족어를 말살하기 위한 폭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조선어말살책동은 교육부문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표 현되었다.

일제는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날조, 개악하여 조선어말살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하였다.

1911년 8월에 발표한 제1차 《조선교육령》과 이 법령의 부속문건인 《보통

학교규칙》, 1922년 2월에 개악한 제2차 《조선교육령》의 《중학교규정》, 1938년 3월에 개악한 제3차 《조선교육령》의 《소학교규정》 등의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들에서 철저히 일본

육설과 기합, 벌금과 퇴학을 비롯하여 가혹한 민족적모욕과 천대를 받았으며 지어 혹독하게 매를 맞고 법적제재까지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28년 5월 일제경찰이 조선어교육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한 함흥고등보통학교(당시) 학생 100여명을 체포구금하고 그가운데서 15명을 재판에 넘긴 사실은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의 악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과 일본말사용의 강요로 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한 언어는 튼튼없는 수년의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의 민족성말살을 노린 일본의 조선어말살죄악은 천추에 씻을 수 없고 용서할수 없는 것이다.

리미영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33만 8 735명이 감염되고 8 888명이 사망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감염자수가 11만 1 796명에 달하였다. 에필르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5만 9 561명, 2 450명에 이르렀다.

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에서 286만 513명이 감염되고 15만 8 831명이 사망하였으며 남아메리카에서 그 수가 각각 192만 3 963명, 7만 5 991명에 달하였다.

브라질에서 감염자수는 119만 2 474명, 사망자수는 5만 3 874명에 이르렀다. 산빠울로주에서 피해가 심하다고 한다.

칠레에서는 25만 4 416명의 감염자와 4 731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오세안주에서

오세안주에서 9 146명이 감염되고 125명이 사망하였다.

유럽에서

유럽 나라들에서 235만 6 910명이 감염되고 18만 9 074명이 목숨을 잃었다.

25일현재 로씨야에서 감염자수가 61만 3 994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 605명이 사망하고 37만 5 164명이 완치되었다.

영국에서 24일현재 감염자수가 30만 6 862명, 사망자수는 4만 3 081명으로 늘어났다. 웨일즈보건의당국은 최근 3개의 식료품가공공장에서 약 330명의 종업원이 감염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라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33만 8 735명이 감염되고 8 888명이 사망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감염자수가 11만 1 796명에 달하였다. 에필르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5만 9 561명, 2 450명에 이르렀다.

남아프리카에서 감염자수가 11만 1 796명에 달하였다. 에필르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5만 9 561명, 2 450명에 이르렀다.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에 우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24일 《COVID-19》가 세계적범위에서 계속 급속히 전파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이 대류행전염병이 발생한 후 첫 1개월동안에 1만명미만의 감염자가 확

인되었지만 최근 1개월 동안에는 거의 400만명의 감염자가 등록되었다고 하면서 1주일내에 세계적인 감염자수가 1 000만명에 달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아메리카지역 국장은 세계적

으로 감염자의 거의 절반이 아메리카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450만명이상이 감염되고 그중 22만명이상이 사망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꿈틀거리는 일본의 재침야망

일본이 선제공격능력 확보에 대해 또다시 떠들어대고 있다.

일마전 일본수상 아베는 수상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지키는것이 정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고 고야데며 이른바 《적기공격능력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 아는것처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전범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징벌을 받고 교정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의 헌법 9조에도 자국이 그 어떤 공격무력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런 일본이 헌법 9조를 깰뻔하면서 명색이면 《전수방위》 원칙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선제공격전략을 공공연히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 무력이 《전수방위》의 원칙을 벗어나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곧 재침의 길에 뛰어드는 행위이다.

물론 일본에서 선제공격에 대한 소리가 나온것은 처음이 아니다.

패망후부터 지금까지 력대 일본집권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위협》이라는 미명하에 적기공격능력보유에 대해 운운하곤 하였다.

그리고는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여기에 장에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하나하나 없애버리기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제공격능력보유에 대해 계속 공공연히 떠들며 재침의 광기를 부린적은 일찌기 없었다.

아베당국이 집권초기부터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와 《평화헌법》개정을 부르짖으며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왔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임판 터지면 적기공격능력보유와 《집단지적위협》 행사를 위해 헌법적색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떠들었다가 하면 《평화헌법》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던것이 이제는 《평화헌법》 같은것은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선제공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망발을 뱉쳐대고있는 것이다.

기어이 해외침략의 꿈을 실현해보자는것이다.

이것을 위해 지금 일본은 공화국의 《미사일위협》설을 계속 내뿜으며 일본사회에

반공화국적대의식과 《안보위기》를 적극 고취하고있다.

일본의 갈망스러운 작태는 무능한 정치로 하여 초래된 최악의 집권위기에에서 벗어나려는 아베일당의 앞은 속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현재 아베측근들의 련이은 추문사건들과 악화되고있는 경제위기, 《COVID-19》의 방역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능 등 요리를 정부는 사죄적 악재들로 하여 일본집권층에 대한 민심리탈은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아베일당은 또다시 안보카드를 꺼내들고 국정위기탈출용으로 써먹으려 획책하고있는 것이다.

일본이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떠들어대는데도 국내론의의 초점을 《북

의 위협》에 대치한 《안보문제》에 집중시켜 확산되고있는 반정부민심을 돌려세워버려는데 목적이 있다.

남을 걸고 제 리속을 채워보자는것이 아베정부의 속심이다.

사실들은 일본의 아베정권이 《적기공격능력》 보유론으로 《북의 위협》을 부각시킴으로써 최악의 집권위기에에서 벗어나려는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아베일당은 또다시 안보카드를 꺼내들고 국정위기탈출용으로 써먹으려 획책하고있는 것이다.

일본이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떠들어대는데도 국내론의의 초점을 《북

본사기자 주광일

과일나무향기에 묻혀

안변군 모퉁리 소재지는 한옥의 그림자처럼 아름답다. 산기슭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문화주택들도 그러하지만 집집마다 심은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소재지마을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용하여 수심그루의 사과나무를 가꾸고있는데 한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최고 150kg의 사과를 딸 때도 있다고 한다. 과일나무동네의 자랑은 안변군 모퉁리소재지에만 있지 않다. 해산시교외의 수심포마을에 가면 누구나 《과일나무집》이라고 정답아 부르는 집이 있다.

이곳 군안의 농촌세대에서는 보통 15그루이상의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어 가꾸고있다. 박병일가정의 집뜰락에는 7년생 복숭아나무들과 4년생 복숭아나무들이 푸른 잎새를 펼치고있는데 20여그루나 된다.

이밖에 살구, 포도, 사과, 감, 앵두나무들도 있다. 이 가정에서는 한해에 보통 500kg이상의 복숭아를 비롯하여 많은 과일을 따들인다고 한다.



살림집 주변에 많은 과일나무를 심고 가꾼다.

실리가 큰 잣나무품종립조성기술

잣나무는 기름나무들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나무의 하나이며 그 자원이 많다. 잣나무림을 많이 조성하는 것은 먹는 기름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가진다.

이러한 잣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이다. 공화국의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에서 경제적실리가 큰 새로운 잣나무품종립조성 기술을 개발하였다.

작을 8년이상 앞당길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회령시, 름산군, 수안군, 운산군, 구장군, 세포군, 함주군 등지의 산들에 이 기술을 도입한 결과 사람들이 철저히 보장되어 우량품종의 잣나무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할수 있다는것이 실적으로 입증되었다.

1933년 어느날 레코드회사의 전속작곡가로 있던 리면상의 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리면상 《꽃을 잡고》를 민요풍의 곡조를 붙여 레코드취입에 넘기면서 그 명칭을 《민요》라고 달아 내놓았는데 이것이 작곡가들속에서 큰쟁을 일으킨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의미하며 생각을 굴리던 리면상이 신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민요를 조상전래의 옛 가락에만 귀착시킨다면 민요라는것은 100년전에나 100년후에도 그 가락으로 남아있어야 하단 말인가. 민요도 시대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는것으로 보아야 하네.》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최산수로 불리운 최북. 18세기 조선의 이름있는 화가들가운데는 최북도 있다. 최북은 인물과 산수, 꽃과 짐승을 그리는데 능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산수화를 잘 그려 《최산수》라고 불리우기까지 하였다.

최북에게 그림을 그리것을 강요하자 그는 자기의 한쪽눈을 찢어 버리게 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한여름》, 《금강산》, 《표훈사》, 《어름뽕》, 《매와 토끼》 등을 들수 있다.

북북질하여 바위와 산의 림체감을 나타내고 각이한 농담의 점묘법으로 나무들을 생동하게 그려낸 화가의 개성적인 필치와 독특한 화법이 엿보인다. 또한 작품에 산천을 구경하거나 앉아서 한담하는 로인들, 마당을 쓸거나 풍구앞에서 부채질하는 아이를 그려넣음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밀착시키고 친근감을 자아내게 하였다.

식물도 《적대적관계》가 있는가

사람과 동물에게만 벗과 원수가 있는것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벗과 원수》가 있다. 물론 식물의 《벗과 원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성장상태에서 표현된다.

해충을 쫓을수 있다. 강냉이와 완두콩 사이사이 심으면 같이 잘 자랄수 있어 리익을 본다. 장미와 나리류는 《다정한 친구》라고 할수 있는데 그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꽃송이가 많이 달리고 잎이 무성할수 있다.

《적대적관계》에 있는데 가까이 함께 있으면 도마도의 분비물 때문에 감자는 죽고만다. 감자는 해바라기, 호박과 싫어하는 《적대적관계》에 있다. 근대신 감자밭에 강냉이를 섞어 함께 심으면 감자는 강냉이와 사이좋게 잘 자란다.

《이것을 어떻게 민요라고 할수 있나. 이 노래야 작곡가 리면상의 창작품이 아닌가.》 그러자 김교성이 품채 좋은 몸통을 뒤로 젖히며 주를 달았다. 《음, 하긴 작곡가의 창작품을 전통적인 민요가라하면 같은 그릇에 담을수 있겠나.》

《그렇지! 구전민요와는 다른 새로운 민요라는 뜻에서 새 《신》자를 덧붙여 《신민요》라고 하면 어떻겠나?》 그리하여 《포리들》 레코드회사에서 제작한 소리판에 처음으로 《신민요》라는 새로운 용어가 불기 시작하였고 그후 새로 창작한 민요풍의 노래에 《신민요》라는 명칭을 달기 시작하였다.



산수와 《매와 토끼》(최북 작)

허성철

사화

리순신과 로인 (4)

글 박춘명, 그림 채대성

《어떻게 한단 말이고?》 《밀물때를 맞추어서 왜놈들의 배를 끌어들이면 썰물때는 밀려서 갈팡질팡하게 되지요.》 《배들이 그냥 도망치지 않겠는고?》 《울돌목의 물살이 너무 빠르기에 그곳에서는 배를 멈추어세우지 못할줄로 아뢰옵나이다.》 《그래서?》 《소인의 생각에는 울돌목 물속에 쇠사슬을 늘어놓으면 어떻하오이다.》 《쇠사슬을?》 《쇠놈배들이 흘러내리다가 쇠사슬에 걸리면 웬간한 배는 뒤집히고말줄로 아뢰나이다.》 《고담네, 고담네. 그대들은 이제부터 나의 옆에서 이통제사를 도우라.》 리순신은 희색이 만만하여 로인의 손목을 짊 쥐었다. 이튿날 리순신은 늙은이에게 명하여 근처에 있는 고기배들을 모두 모으게 했다. 그리고는 그 고기배들을 마치 싸움배처럼 위장시켜

수군의 배뒤에 배치하여 놓았고 칠봉이에게는 인민들과 함께 해협의 연안을 지키다가 특이치 울라오는 왜놈들을 몰살시킬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 막료들에게 울돌목에 쇠사슬을 늘어놓도록 하였다. 전투는 리순신 자신이 직접 울돌목에 나가서 지휘하기로 했다. 리순신은 십여척의 배들을 울돌목으로 나가있게 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조선수군의 위력이 굉장해보였다. 드디어 도도, 구루시마 등이 지휘하는 수백수십여척의 전선이 최대만조기의 순류를 따라 우리 수군이 배치되어있는 울돌목으로 침공해왔다. 《푸른기를 울려라!》 리순신은 해협이 미여지게 물러오는 왜놈들의 배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수군의 모든 전투지휘는 호포와 기발로 하게 되어있

었다. 그의 출동명령에 따라 우리의 함선 12척이 일자형으로 진을 쳤다. 적들은 우리의 전선수가 적은것을 보고 포위진을 치면서 공격하였다. 우리 수군의 일부 편장들은 적선의 수호가 너무도 많은데 놀래여 얼마간 뒤로 물러서려는 기색이 보이였다. 만약 12척의 배들중에서 한척이라도 물러서면 적들에게 완전포위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 《통제사아른, 썰물때가 가까오는데 물러서면 안될 줄로 아뢰나이다.》 로인이 안라까운듯 옆에서 말했다. 《우리의 배부터 앞장서라. 왜놈을 맞받아나가자.》 리순신은 고목로 나서면서 엄하게 명령을 내렸다. 진두에 선 지휘선의 움직임은 큰 영향을 주었다. 일시 뒤로 물러섰던 거제현령 안위의 배와 참모 김응합의 배들도 돌격전에 가담

하였다. 각종 총포와 포들이 적선을 향해 입을 열었다. 불덩어리들이 왜놈의 머리와 배를 조수에 밀려서 서로 부딪치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통제사아른, 때를 놓치지 마시오이다.》 로인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왜놈들을 쳐라. 총, 포를 쏘라.》 지휘선에서 다시 사격이



의 사기는 갑자기 떨어졌다. 《통제사아른, 썰물이 시작되어다. 우리의 배들이 밀려내려가지 않게 하시오이다.》 로인이 바다물을 보며 말했다. 시작되자 우리의 배들에서는 일제히 갈팡질팡하는 왜놈들의 머리위에 불벼락을 퍼붓기 시작했다. 왜놈들의 배는 점점 밀려 내려 가장 좁은 여울목에 이르렀다.

파연 썰물이 시작되고있었다. 조수의 흐름이 점점 눈에 띄우게 알려졌다. 왜놈의 배들이 조수에 밀려서 서로 부딪치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통제사아른, 때를 놓치지 마시오이다.》 로인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왜놈들을 쳐라. 총, 포를 쏘라.》 지휘선에서 다시 사격이

살구명을 찾아보려는 왜놈의 배들이 기슭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앞서 기슭에 늘어놓은 첩사로 해서 배를 대지 못하고 돌아치다가는 통제로 뒤집혀지곤 하였다. 살아남은 놈들이 헤엄을 쳐 갈신히 기슭에 오르자 철봉이를 선두로 한 군사들과 인민들이 의하여 모조리 녹아났다. 울돌목싸움에서 왜놈들의 배 80여척이 녹아나고 4000여명의 적들이 격멸되었다. 우리의 수군은 인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본거지로 돌아오고있었다. 바다기슭이 가까와오자 수군들은 소리높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그러나 리순신은 숙연히 무릎을 꿇고앉아 로인을 붙안고있었다. 울돌바다 마지막싸움이 한창일 때 왜놈들의 눈먼 총알에 로인이 전사하였던 것이다.

여름철로증과 칼리움보충. 일반적으로 봄에는 피곤하고 가을에는 나른하며 여름에는 졸음이 온다. 여름철에 많은 땀이 배출되는것으로 하여 인체는 다량의 나트륨과 상당한 량의 칼리움을 잃으며 하여 인체의 피로와 무력증이 나타난다. 칼리움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원소로서 근육과 신경의 민감성을 유지, 강화하고 심근의 정상적인 운동기능과 콩팥의 정상기능유지에 도움을 주며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일단 칼리움이 결핍되면 인체의 정상적인 운동기능이 영향을 받을뿐아니라 신체의 여러 생명활동에서도 기능저하현상이 초래되고 고온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도 떨어진다. 특히 차일속에 칼리움이 풍부히 들어있으므로 더운 여름철에 일상적으로 마시면 좋다.

어저 사람들이 쉽게 더위를 먹는다. 따라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과 칼리움섭취를 늘려야 한다. 그러므로 하여 무더운 여름철에는 포도, 수박, 참외, 복숭아, 가지, 시금치, 유채, 미나리, 도마도, 오이, 감, 다시마, 감자, 콩제품, 버섯 등 칼리움이 풍부한 음식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밖에도 작물가운에서 메밀과 고구마에, 고기중에서는 돼지피살과 물고기, 새우에 칼리움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다. 특히 차일속에 칼리움이 풍부히 들어있으므로 더운 여름철에 일상적으로 마시면 좋다.

본사기자